

“완도 전복산업 활성화 친환경 국제인증 실천”

노화·보길·소안면 방문 ‘이동군수실’ 운영 양식장 관리·재해보험 가입 등 의견 교환

완도군은 최근 노화읍과 보길면, 소안면을 방문해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어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운영했다.

완도군 전복 시설량은 약 73만칸으로 2007년 대비 3배 증가했으며 생산량은 약 3만5,000톤에 이른다.

특히 노화, 보길, 소안 3개 읍·면에서는 군 전체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전복 양식장이 있다.

하지만 최근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경기 침체 등 소비 부진으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2019년도 전복 생산량 조절과 기후변화 대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군수실’을 마련했다.

또한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인 ASC 인증 확대를 위해 청산바다환경연구소 김경원 소장을 초청해 지역민들에게 ASC 인증의 필요성 및 인증 후 변화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이동군수실’에서는 전복 양식의 발달사에서부터 최근 동향,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대책 등으로 신우철 군수가 직접 강의에 나서 이해도를 높였다.



완도군은 최근 전복양식어민을 대상으로 이동군수실을 운영했다. /완도군 제공

특히 지난 두 번의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동안 꾸준히 ‘이동군수실’에서 전복 양식장 간 줄이기 운동을 펼친 결과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전복 양식장 간 줄이기는 기존 4줄

로 100칸을 시설했다면 1줄을 비워 25% 줄인 75칸을 시설함으로써, 태풍이나 풍랑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전복 생산량 조절에도 도움이 돼 가격안정을 꾀할 수 있다.

또한 고수온, 적조, 폭우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을 강조하며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그 외에도 지속가능한 전복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유통·가공·판매 전 분야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군수실’에 참석한 보길면 양모 씨는 “전복산업 전반 및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향후 전복을 키우는데 있어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하며 양식장 관리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신 군수는 “이번 이동군수실에서 전문가가 제시한 친환경 수산물 인증 등을 꼭 실천해 전복산업을 지속 성장시켜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내고장 일꾼



이승욱 강진 군수는 10일 오후 1시 45분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평생교육 졸업페스티벌에 참석한다.



신우철 완도 군수는 10일 오전 10시 30분해 조류스파랜드에서 열리는 전복산업 위기극복 워크숍에 참석한다.



이동진 진도 군수는 10일 오전 8시 30분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주요개발사업 보고회에 참석한다.

강진 성전면 행복문화관 준공

문화·복지·생활편의시설 등 갖춰

강진군은 최근 성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식을 성전면 월평리 행복문화관에서 지역주민들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준공식은 주민운영위원회의 난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 축사,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농촌지역의 중심공간인 면소재지의 특성을 살려 문화, 복지, 생활편의시설 등 농촌 지역의 중심공간시설을 기반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

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에 역점을 뒀다.

주요사업으로 행복문화관, 행복나눔터, 행복갤러리, 행복장터 및 주차장 조성, 간판정비 등이다.

이승욱강진군수는 “성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완료돼 주민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주민들의 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촌 주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목포시는 안전등급 C등급으로 판정받은 갯바위 해상보행교 보수공사를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 /목포시 제공

목포 갯바위 해상보행교 보수공사

내년 1월까지...부잔교 구간 140m 전면 보수

목포시가 갯바위 해상보행교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한다.

시는 11일부터 내년 1월까지 갯바위 해상보행교 정비를 실시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정비기간 동안에 통행을 통제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에 설치된 갯바위 해상보행교는 총길이 298m, 폭 3.6m로 지난해 정밀안전 점검결과에서 안전

등급 C등급으로 판정받았다. 시는 부잔교 연결고리의 주요 결함부는 긴급 정비했으나 부잔교 구간 140m는 데크가 파손되고 고정용 쇠사슬 부식이 심각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보수공사를 통해 노후 난간, 바닥, 고정철물, 조명기구 등 전면 보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4억8,500만원이며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한다.

지난 2009년 천연기념물 제500호로 지정된 갯바위는 매년 40만명이 방문하는 목포시 대표 관광명소로서 이번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관광객이 갯바위를 해상에서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1년중 해상보행교 이용객이 가장 적은 기간에 공사를 실시하니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연안여객선 도서민 차량운임지원 확대

1,600cc 미만 승용차...내년 최대 50% 지원

내년부터 1,600cc 미만 승용차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한국해운조합(회장 이용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이 일부 개정될 예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를 이용하는 도서민의 차량운임 지원액이 대폭 증가한다.

특히, 1,000cc 미만 승용차는 총 차량운임의 50%까지 지원되며, 1,000cc 이상, 1,600cc 미만 승용차는 차량운임의 30%를 지원받는다. 1,600cc 이상, 2,500cc 미만 승용차 및 5톤 미만 화물차 지원을 유지한다.

그동안 도서민 차량운임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20% 정률로 지원되었으나,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많은 도서민들이 사용하는 소형 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을 차등하게 확대 지원된다. 지원은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 차량에 한한다.

이 조합회장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사업이 새로운 결실을 맺게 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해상 교통수단의 공공성 확대와 도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 도서민 교통편의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최규욱 기자

진도 서망항, 해수부 국가어항 평가 우수

진도군 임회면에 위치한 ‘서망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국가어항 운영·관리 최종 평가에서 전국 110개소 국가어항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기획재정부 재정개혁 과제에 선정된 국가어항 관리 평가제 도입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매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어항의 효율

적 운영관리를 투자 효과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 서망항이 전국에서 아름답고 쾌적한 어항, 어업 활동에 편리한 어항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도=박병호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부 061 - 285-9816
- 목포 010-3272-2765
011-632-0323
010-3635-6777
- 무안 010-3621-8989
- 신안 010-4627-1472
- 영암 010-4624-8409
- 진도 010-3624-4777
- 완도 010-5619-7020
- 해남 010-8181-2627
- 강진 010-6646-1241

클릭! 고향 소식



한국효도회 강진지회, 연탄 나눔 봉사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강진지역회는 최근 연말을 맞아 따뜻한 겨울 준비를 돕기 위해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연탄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아니지만 정부 지원 중지로 인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연탄을 지원했다.

마삼섭 한국효도회 강진지역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함께 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영암 제14기 왕인대학 수료식

영암군은 최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14기 영암군 왕인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서는 제14기 영암군 왕인대학 106명의 수료생들을 대표해 박옥도 자치회장이 수여 받았으며 영암읍 고재철 어르신을 비롯해 20명의 수료생이 개근상과 정근상을 수상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왕인대학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신안 비금면여협 김장나누기 행사

신안군 비금면 여성단체협의회는 최근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갖고 1,500포기를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300세대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비금면 자원봉사자회와 부녀회, 새마을문고회, 농가주부모임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비금면 여성단체협의회 홍미숙회장은 “매년 김장나누기 행사는 여성 단체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목포여협, 조손가족에 김장 전달

목포시여성단체협의회는 최근 양양동 소재 태화모자원에서 저소득 조손가족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60여명이 참여해 김장 1,200포기를 23개동 180세대 저소득 조손가족에 맛김 1박스씩 함께 전달했다.

정혜란 회장은 “갈수록 물가가 오르고,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지만 올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김장김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